

# 10개 종단, 종교·지역 벽 허물고 협력 모색하다

### '광주전남 종교인 평화실천연대' 14일 출범식... '살림과 죽임' 포럼

광주전남 10대 종단이 종교 간 벽과 지역 한계를 넘어 대화와 협력증진을 모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10대 종단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성공회,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의 10대 종단 대표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종교인 평화실천연대' (이하 평화실천연대)가 결성돼 오는 14일 오후 3시 양림동커뮤니티센터 소극장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특히 평화실천연대의 출범은 세계종교연합 선도기구인 UN 산하 NGO 세계종교연합의 '한국종교연합'과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광주전남종교인평화실천연대는 상임대표는 이우송 성공회 신부(살림문화재단 이사장)가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박상규 목사(기독교전 광주 NCC 회장), 현지 스님(원효사 원로스님·전 광주 사암연합회 회장), 정세완 교무(원불교), 안웅(천도교), 홍준표(유교·총무수석장), 박용수 고려인 동행위원장(시민사회·전 CBS 상무)이 포함됐으며 사무총장에는 조성식 박사(역사학)가 맡는다.

아울러 이번 출범식에서는 제102차 종교인 평화포럼도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 '살림과 죽임'은 "만연한 죽임의 문화를 걷어내는 총총한 '살림'의 그늘"을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지구촌의 전쟁



이우송 신부



박상규 목사



정세완 교무

양공동체가 평화운동을 하려면 먼저 그 공동체가 무조건 열려있어야만 한다"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항상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일의 진행이 투명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 공동체의 운영을 모두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 분쟁종식, 생명존중과 평화정착, 정의실현 등과 같은 담론의 공유와 의견 개진이 있을 예정이다.

1부는 이우송 신부(공동대표) 사회로 평화를 위한 기도, 박경조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전 대한성공회관장 주교)의 인사말이 이어진다. 이어 조성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국종교연합 광주전남 조직개편 소개와 함께 고문 및 공동대표단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제102차 평화포럼이 진행된다. 이정구 신부(전 성공회대학교 총장)와 이남곡 선생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정구 신부는 미리 배포한 '신앙공동체와 평화-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발제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종교기관에도 물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더 몰리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성직자는 권력이 생기고 명예도 누리기 마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앙공동체가 평화로우려면 혹은 신

인문학자 이남곡선생은 '한살림선인 30년전을 축하합니다'의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선생은 "우리는 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을 겪고 나서 본격적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어 왔다. '물질적 진보'와 '제도의 민주화-평화적인 정권교체' 등은 해냈지만 세 번째 과제인 '의식과 문화(생활양식)'의 진보가 남았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고 또 하나는 지구적 인류적 차원의 문명 전환 의식"이라며 "한살림"은 특수한 대안운동을 넘어서 이제는 보편 운동, 화해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어 이상호 공동대표(유교신문대표), 장관철 목사(기독교·무진교회), 최도은 교무(원불교 역사박물관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3부는 인근 '살림문화재단'으로 이동해 박경조 주교와 함께 하는 차담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오는 17일까지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서 열리는 '방법이 없다' 전.

## 작가·기획자 힘 모아 '방법이 없다' 전

### '아젠다 하이웨이 1111' 첫번째 전시 17일까지 미로센터·아크갤러리 37명 참여... '예술상영회' 특별전도

청년 작가들에게 국제 무대 진출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다. 하지만 막상 시도를 할 때면 연결고리와 방법 등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다. '아젠다 하이웨이 1111'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젊은 작가와 기획자들이 힘을 합쳐 꾸린 융복합형 플랫폼이다. 온라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성과 축적성 등을 활용, 단발적으로 끝나 버리는 오프라인 전시의 자료를 아카이빙으로 구축해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정보 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게 목표로 지역의 한계성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담았다.

'아젠다 하이웨이 1111'의 초석을 놓는 첫번째 전시 '방법이 없다' 전시 오는 17일까지 새로 문을 연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와 광주시 동구 계림동 아크갤러리 두곳에서 열린다. 전시와 함께 포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진 기획으로 지역 청년작가들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동시대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정신의 재조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구성했다.

본전시에는 강원제·강지수·김민성·김철아·김혜림·문유미·서완호·안효찬·윤동희·이세현·이인성·이조흠·하승안·후대성 등 37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설치,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로센터 3층 미로극장에서는 특별전 '예술 상영회'가 열린다. 현대 미술 작가들의 영상 작품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기획으로 관객이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상영회는 세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제 1파트(오전10시-10시40분, 오후 2시10분-2시50분)에서는 유지원의 '예술가의 여정', 비앙카 케네디 & 더 스완 컬렉티브의 'The Lives Beneath' 등 4편이 상영되며 제 2파트(오전 11시10분-12시, 오후 3시20분-4시10분)에서는 이주원의 '네일라는 무엇인가?', 김영규의 '연분 1억 작가 되기 1강-미술 시장과 경제' 등 4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제 3파트(오후 1시-1시40분, 오후 4시40분-5시20분)에서는 윤동희의 '거짓된 꽃은 고통의 눈물로 자란다' 등 5개 작품이 상영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작가와 함께 시민들이 대형 인형을 만들고 한해 돌아보기, 소원 말하기, 생각 표출하기 등의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모두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6일 오후 2시 미로센터에서 공개 토론회도 열린다. '동시대 청년 예술가의 국제 무대 진출 위한 역량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엄기준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며 흥경한 미술평론가가 함께 해 의견을 나눈다. 전시 기간 중에는 프리랜서 도슨트 회사 '젤리 에이전시'와 협력해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동구문화적도시재생 사업단과 2019 아젠다하이웨이 1111 운영위원회가 함께 꾸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어렵풋한 남녀간의 사랑... 감정...

### 임남진 작가 '애연\_운우지정' 전 18일까지 예술공간 집

한국화가 임남진 작가는 지난해 개인전을 통해 변신을 시도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확연한 상황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는 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모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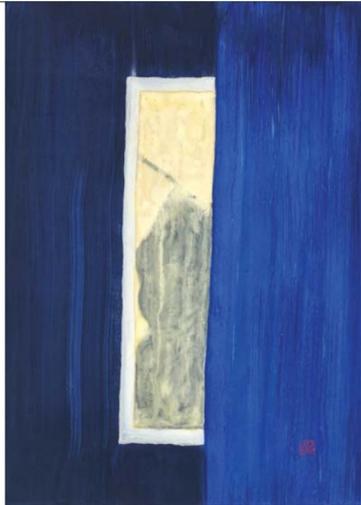
임작가가 늦가을 여는 이번 전시에서 또 한번 변화를 모색했다. 이번엔 그의 마음을 동화해 한 건 '춘화(春畵)'로, 그녀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은 사랑의 미묘한 감정을 아련하게 잡아 내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

지난 2013년 열린 '옛사람의 삶과 풍류 - 조선시대 춘화'전이 출발이었다. 작품들에도 눈이 갖지만,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도 남녀의 정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다"는 이육(李翊) (1760-1812)이 쓴 글의 몇 대목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때 처음, "언젠가 춘화도를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사랑과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오랜 생각들을 풀어내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오는 18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이번 전

시의 제목은 '애연(儂然)\_운우지정(雲雨之情)'이다. 남녀간의 어렵풋한 사랑의 감정을 형상화한 작품들로 육체적 사랑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진동에 주목했다. 애뜻한 사연이 담겼을지도 모를 연서같은 작품 '오래된 편지'를 시작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를 맞이했을, 달과 어우러진 푸른 밤의 풍경이 떠오르는 'Blue Day' 시리즈, 사랑의 설레임과 부끄러움, 원숙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한지에 채색으로 작업한 작품들은 자연스러운 번짐과 어우러져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임 작가는 "사랑도, 사랑도, 젊음과 아름다움도 오래 머물러주는 것이 아니며, 변하는 것이 이치이다. 봄(春)을 지나온 마음의 형상을 춘화형식을 빌어 '몸에 대한 사랑과 자연의 이치'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조선대를 졸업한 임 작가는 광주와 서울에서 8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제19회 광주미술상, 원진미술대상 특별상, 하정웅 미술



'블루벨벳'

상, 신세계미술재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시립미술관 6기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로도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쇼팽 스페셜리스트 피아니스트 임동민 연주회

### 1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한국을 대표하는 쇼팽 스페셜리스트인 피아니스트 임동민이 앨범 발매 기념 리사이틀을 갖는다. 1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공연 레퍼토리는 슈만의 '어린이 정경', 쇼팽의 '스케르초' 전곡이다. '어린이 정경'은 슈만의 대표작인 피아노 모음곡이다. 슈만이 1838년 초에 작곡했던 서른여덟 개의 짧은 곡들 중에서 열세 편 정도를 추려낸 것으로 어린이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미지의 나라와 사람들', '이상한 이야기', '술래잡기', '조르는 아이', '목마의 기사' 등으로 구성했다.

'스케르초'는 '해학, 희롱'을 뜻하는 말로 해학 곡을 의미한다. 격렬한 리듬, 기분의 급격한 변화 등이 그 특징이다. 총 4곡으로 구성된 쇼팽의 '스케르초'는 2번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임 씨는 지난 9월 앨범 '쇼팽 & 슈만'을 발매했다. 2011년 쇼팽 앨범 이후 8년 만의 앨범으로 슈만의 '어린이 정경'과 쇼팽의 '스케르초' 전곡을 담고 있다. 그는 앨범 발매를 기념해 지난 10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고양, 대구, 통영 등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임 씨는 "슈만의 음악적 표현은 쇼팽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 같다"며 "두 곡의 대조되는 면을 한



리사이틀에서 보여 드리고 싶었다. 감정 표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씨는 1996년 국제영 쇼팽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비올리 국제 콩쿠르 3위, 부조니 콩쿠르 3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 등 세계 콩쿠르를 휩쓸었다. 2005년, 한국인 최초 쇼팽 국제 콩쿠르 3위에 올라 또 한 번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차

이콥스키 콩쿠르와 쇼팽 콩쿠르를 동시에 입상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차이콥스키 심포니, 샹페테르부르크 심포니, 바르샤바 내셔널 필하모니, 슬로바 필하모니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전석 5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장성문학상에 시조시인 최병두 선정

제11회 장성문학상(상금 300만원) 수상자로 시조시인 최병두(사진) 씨가 선정됐다.

최 시인은 일제강점기 '소년 조선'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1946년 경성자동실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시집으로 '한 많은 DMZ' 등이 있으며 지난 2015년 호국영웅훈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장성문인협회가 지난달 황룡강 노란꽃축제 기간 주최한 문분여백일장 장원에는 설주희 씨의 '황룡강 전설'이 차지했다. 전국에서 300여 편의 작품이 응모된 결과, 차상에는

김은미(서울), 박은혜(광주) 씨가 차지했다. 학생부 장원은 '노란꽃 잔치'를 쓴 권지우(장성 서삼초2) 학생이, 차상은 김태림(울산 삼암중3), 김나리(장성 진원동초1) 학생이 차지했다. 상금은 장원 30만원, 차상 20만원, 차하 10만원, 장려상 5만원이다.

한편 문분여백일장과 장성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2019 장성문학축제로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13일 '예술의 거리 밀레니얼 포럼'

2030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내일의 예술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예술의 거리 밀레니얼 포럼' 세 번째 행사가 13일 오후 7시 궁동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밀레니얼 세대와 뭐하면서 놀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꽃비(광주 1930 양림쌀롱 PM), 안진나(대구 북성로 오픈팩토리 PM) 기획자가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다. 20일에는 '아시아의 밀레니얼 세대, 예술의 거리에 오다'를 주제로 아시아 국가 밀레니얼 세대를 초청, 마지막 포럼을 개최한다. 이야기 손님 강연 후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야기 손님과 참가자가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면회장(180명), 소면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